



열정과 파워가 넘치는 전문경영인

더 존 디 지 털 웨 어 대 표

김재민

공자는 지자요수 인자요산(智者樂水 仁者樂山)이라 했다. 물은 흐르고 흘러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고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인자한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산을 좋아하는 김재민 대표의 넉넉한 미소를 보면 그 말이 맞는 듯하다. 더존디지털웨어가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내놓은 비장의 카드 김재민 CEO. 그의 경영이념과 목표에 대해 들어보자.





더존디지털웨어(이하 더존)는 국내 경영정보 소프트웨어의 리더로서 세무회계프로그램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 더존은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전문경영인 김재민 대표를 영입했다. 김대표는 실리콘밸리의 신화를 만들어낸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글로벌 IT그룹 유니시스 등 세계적인 기업의 지사장을 지내며 선진경영을 몸소 익힌 경영 달인이다.

“지금까지의 경영경험과 다른 회사의 비즈니스모델을 봤을 때, 더존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김대표는 미국의 대표적 회계소프트웨어사인 ‘인투이트’가 연 매출 6~7억 달러를 올리고 있다며 이를 벤치마킹하여 더존을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시장은 넓고 성장 가능성은 무한하다

김대표는 기존 주력사업의 강화와 시장다변화를 통한 수익원 다각화 그리고 다양한 제휴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오는 2007년에는 450억 매출에 영업이익률 5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바탕으로 국제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김대표가 지난해 6월에 전사적 자원관리 사업분야를 ‘더존다스’로 분사킨 것도 주력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더존다스를 분사하고 주력사업인 네오플러스를 업그레이드한 네오플러스2를 출시하였습니다. 200인 이하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무회계, 물류, 생산, 인사급여까지 통합관리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최근에는 20인 이하 사업장에 적합한 네오플러스라이트와 5인 이하 사업장도 웹상에서 같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네오포트를 출시하였습니다.”

김대표는 분사 이후 주력사업을 강화하여 매출상승효과를 보았다고 말한다.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유지보수까지 해 주는 업체가 몇 안되는 반면 더존은 매출의 1/3이상이 유지보수에서 발생하는 매출이라며 이를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김대표의 또다른 자랑은 열정적인 더존직원들. 마치 직원들이 스펀지같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애사심은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에서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한다.

“우리 직원들은 애사심이 대단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고객을 무척 아깁니다. 주고객인 세무사 선발시험이 일년에 4차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시험감독과 프로그램 설치를 지원하는데, 한치의 불평불만 없이 주말을 포기하고 나옵니다. 또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받아드리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오히려 제가 주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김대표는 이런 직원들이 있기에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경영방식이 변해야 벤처의 신화는 계속된다

“많은 벤처기업들이 성공에 도취되어 우후죽순으로 신규사업을 벌이고, 과도하게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량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잔가지들은 정리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업에 매진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은 기술 하나로 성공한 경우가 많아, 기술 외에 시장을 보는 눈, 금융관리 등 경영에 필요한 요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전문경영인을 영입해 기술과 경영을 접목시켜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김대표의 말이다.

전문경영인으로 더존에 영입된 김대표 또한 세계적인 경영인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MS사의 스티브발머와 GE의 잭웰치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보는 탁월한 시각과 현실을 정확하게 간파하는 섬세함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탁월한 경영능력을 본받아 더존을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으로 키워내겠습니다.”

김대표는 더존이 초일류기업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갖춘 후 차기주주를 많이 키우는 것이 자신일 일이라며 젊고 능력있는 인재들이 빨리 성장해줄기를 바란다 밝혔다. 김재민 대표의 열정과 에너지에서 더존디지털웨어가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Mountain

그 남자의 재충전 山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는 김재민 대표는 재충전을 위해 산을 자주 찾는다. 김대표는 산에서 기를 충전하고 업무로 돌아와 그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야말로 산 사나이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산을 탔지만 이론과 실기를 체계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해 올해 5월에는 한국등산학교를 수료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평소에는 가까운 산을 찾지만 치악산, 덕유산, 설악산, 소백산, 지리산에도 자주 오른다. 또 일년에 한 번 세계에서 험난하기로 소문난 산을 등반하는데 지금까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코타카나발루, 백두산을 정복했고 올해는 킬리만자로에 도전할 예정이다.